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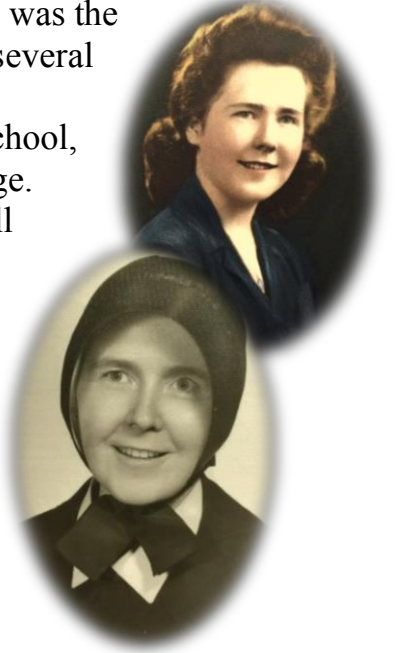


Hello. I am Sister Mary Noël Kernan, and I entered our congregation on October 16, 1948, the birthday of my aunt Mary for whom I'm named. It was the fall of the year and a beautiful day. When I arrived at Seton Hill I was told by one of the novices that despite coming so late, I would be senior of our group because I was so old! A few months later I was sent to Sacred Heart High School to substitute for Sister Mary Rebecca who'd had an emergency appendectomy. That short six weeks was the beginning of my teaching career which took me to several of our schools: St. Philip, St. Irenaeus, St. James, Elizabeth Seton High School, Sacred Heart High School, Salpointe High School and finally Seton Hill College.

During those same years of teaching I lived a full religious life as I received the habit and religious name, made first vows and later final vows. After I received a master's degree at Duquesne University and a doctorate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I began to teach English at Seton Hill College. I truly loved every bit of my 35 year teaching career—but my life was about to change. In 1986 I was missioned to St. Joseph High School for Girls in KangJin, Korea, as the one to begin a new program our congregation was introducing as we marked the 25th year of our mission in Korea. I was told that it was a good year for me because I'd just celebrated my 60th birthday, which was a special event in the land of Korea!

I soon grew to love my new country, especially walking to the church in KangJin with my two guardian angels, Sisters MeRyong and RanYong, who 'taught' me about Korea and some of its customs. Actually every sister I met at St. Joseph School for Girls was extraordinarily kind to me as they helped me to understand more of their country and its customs. I wish I had taped their conversations with me—what a treasure that would be now! Sisters Thomas Aquinas, Mary Noreen, and Jean worked with me to let me know the customs at the school and, to my surprise, did not insist on my trying to learn the language. KangJin was just a tiny rural town then with none of its current modern aspect. What I especially remember was the little children running up to us on our way back from church and calling out "Me Gook!, Me Gook!" ("America!") They looked like children from "The King and I." Soon I was teaching English to St. Joseph's girls. As I told the sisters at Seton Hill when I returned, the year was "pure joy."

When I learned that the school's vacation time occurred in January and I would not be teaching, I decided to take my family's offer of a trip to Israel to visit Sister Gemma DelDuca. That trip changed many things in my life. It led to our decision with College President, JoAnne Boyle and the College Board to institute a new program at Seton Hill—the NCCHE. Soon I found myself in a new world as Sister Gemma and I accepted the role of Co-Director in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So my year in Korea led to my first trip to the Holy Land of Israel and to a new work for the people of God.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노엘 커난(Mary Noël Kernan) 수녀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지어준 이모의 생일인 1948년 10월 16일에 입회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날이었지요. 그 날 제가 씨튼 힐에 도착했을 때 한 수련자 수녀님이 저에게 ‘늦게 오긴 했지만 그룹에서 언니가 될 거예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몇 달 후에 저는 새크레드 하트 고등학교(Sacred Heart High School)로 가게 되었어요. 메리 레베카 수녀님(Sister Mary Rebecca)이 갑자기 맹장수술을 받게 되어서 제가 수녀님을 대신하게 되었답니다. 그 짧은 6주간이 저의 교사생활의 시작이 되었어요. 세인트 필립 학교, 세인트 이레네우스 학교, 세인트 제임스 학교,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 세크레드 하트 고등학교, 셸포인트 고등학교 (St. Philip, St. Irenaeus, St. James, Elizabeth Seton High



School, Sacred Heart High School, Salpointe High School) 등에서 가르쳤고 마침내 씨튼힐 대학(Seton Hill College)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저의 수도생활은 충만했어요. 착복을 했고 수도명을 받았고 첫서원과 종신서원을 했지요. 듀케인 대학 (Duquesne University)에서 석사, 피츠버그 대학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씨튼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의 교직생활 때 순간순간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제 삶에 변화가 생겼지요. 1986년, 제가 한국의 강진 성 요셉 고등학교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수도회가 한국파견 25주년을 기념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도 아주 좋은 때라고 했어요. 그 때가 제가 60살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땅에서 아주 특별한 생일을 지냈어요!

저는 곧 이 새로운 나라를 점점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저의 두 수호천사들과 함께 강진 성당까지 걸어가는 길이 좋았지요. 가는 동안 저의 천사 미령 수녀님과 란영 수녀님이 한국과 한국의 풍습에 대해 많이 가르쳐주었어요. 사실 제가 성 요셉 여자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모든 수녀님들은 저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을 녹음해두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되었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수녀님, 메리 노린 수녀님, 진 수녀님(Sisters Thomas Aquinas, Mary Noreen, and Jean)도 저와 함께 일하며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언어를 배우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셨지요. 강진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처럼 현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한 기억 중의 하나는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미국! 미국!’이라고 크게 소리쳤던 일이에요. 그 아이들은 마치 영화 ‘왕과 나’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곧 성 요셉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씨튼 힐의 수녀님들에게 말했듯이 그 해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는 해였답니다.



1월에는 학교 방학기간이어서 수업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족들의 여행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쟈마 델두카 수녀님(Sister Gemma DelDuca)을 방문했어요. 이스라엘 여행은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씨튼 힐 대학의 총장인 조앤 보일(JoAnne Boyle)과 대학 이사회와 함께 씨튼 힐 대학에 새로운 프로그램인 NCCHE(홀로코스트 교육센터)를 만들기로 결정했지요. 쟈마 수녀님과 제가 각각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공동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저는 곧 새로운 세상 안에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결국 한국에서의 삶 덕분에 저는 첫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하게 되었고 또한 하느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일도 하게 되었답니다.

